

칼빈의 시민 불복종 사상

박 회 석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문화의 붕괴를 오게 하였다. 유럽은 교파마다 각기 다른 신학을 주장하면서 서로 논쟁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관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¹⁾ 중세 사상의 붕괴로 권력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여 사회가 갈등할 때 자연스럽게 개혁가들은 그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칼빈의 국가관에 관한 이론은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긴 하지만 당시 시대사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 분명하다. 본고는 칼빈의 국가관에 비추어 오늘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시민운동가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 칼빈이 반대한 국가관

칼빈이 생존하였던 유럽은 어떤 정치 이론들이 있었는지 검토한 후

1)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0), 264-271.

그의 국가관과 시민불복종 사상을 연구할 것이다. 16세기는 천주교회, 루터교회, 재세례파와 개혁교회가 각각 다른 국가관을 제시하고 있었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와 투쟁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1) 중세교회의 국가관

교황 겔라시우스(Gelasius, 492-496)는 아나스타시우스(Anastasius)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황제는 교황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사제와 왕 두 기관이 있다. 왕권은 인간에 속한 문제만 다스리지만 사제는 그것을 능가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그대는 주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야 구원이 가능할 것이다”²⁾라고 하였다.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1073-1085)는 “만일 교황이 영적문제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면 세속적인 일을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교황이 하늘의 일을 결정한다면 현세의 지상적 문제를 판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³⁾라고 하였다. 인노센트 3세(Innocent III, 1198-1216)는 1209년 영국의 존 왕(king John)을 파문하여 교황에게 굴복하도록 하였으며, 영국의 영토를 거룩한 도성 로마에 귀속시켜 영국은 매년 1,000마르크를 교황에게 바치도록 하였다.⁴⁾ 나아가 인노센트는 오토 4세(Otto)를 황제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교황권의 절정은 보니페이스 8세(Boniface VIII, 1294-1308) 때에 발표한 칙령인 운남 상탐(*Unam Sanctam*)에 잘 나타난다.

복음서에 의하면 교회는 두 자루의 검, 즉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 권

2) Eric G. Jay,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y Centuries* (London, SPCK, 1977), 133.

3) Water Ullman, “Calvin and the Duty of the Guardians to Resist: A Further Comment,” *Journal Ecclesiastical History*, 32(1981):67-69.

4) R. C. Petry,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62), 319-21.

위를 소유하고 있다. 사도가 '여기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눅22:38)라고 말했다 때 주님은 '너무 많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베드로에게 세속적인 검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그 검을 칼집에 꽂으라'(요18:11)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한에는 영적인 검과 세속적인 검을 포함하고 있다. 영적인 검은 교회에 의해 사용되고, 세속적인 검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 진다. 영적인 검은 사제에 의해 사용되지만 세속적인 검은 사제의 명령과 허락에 의해 왕과 기사들의 손으로 사용되어 진다.⁵⁾

이 칙령은 왕국과 통치자를 세우고 폐지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으며, 하나님 다음 교황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신성불가침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는 선언이다. 이는 교황이 지상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지닌 영적인간으로 인간을 신격화한 표현이다.⁶⁾ 중세 천주교회는 교회가 세속 정부와 통치자를 판단하고 다스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2) 루터교회의 국가관

루터는 혼란의 격동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신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이 약하다.⁷⁾ 16세기 유럽의 국가 통치자들은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다. 당시 국제 정세와 지역의 제후가 누구냐에 따라 교회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사회 혼란으로⁸⁾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

5) O. J. Thatcher and E. H. McNeal, *A Source Book for Medieval History* (New York: 1905), 136-138에 칙령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6) Water Ullman, *Law and Politic in the Middl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276.

7) 李殷善, "칼빈의 神學的 政治倫理에 관한 研究," (Ph. D. diss., 총신대학교, 1996), 37.

8) Lewis W. Spitz,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74-83.

하자 루터는 세속 통치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를 받았다.⁹⁾ 자연히 교회와 국가 교회의 감독과 세속 통치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형성 되기 마련이다.

루터는 1523년 *세속 권력: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⁰⁾ 그는 세속 정부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처벌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 창조 때부터 만드셨다고 믿었다.¹¹⁾ 루터는 모든 인류가 진정한 기독교인 즉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구 성되었다면 제후, 왕, 주인, 혹은 법이나 무력사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¹²⁾ 세속정부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대변한다.¹³⁾ 두 왕국은 은혜의 나라, 복음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영적 왕국이라 불리어지는 하나님 왕국과 현세적 통치, 힘의 왕국, 세상 통치로 불리어지는 세상왕국이다.¹⁴⁾ 두 왕국 모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상호의 존 혹은 보완적 관계이지만 분리는 불가능 하다고 가르친다.¹⁵⁾ 그러나 루터는 영적 왕국이 세상왕국보다 고상하며 우위에 있다고 가르친다.¹⁶⁾ 영역주권의 한계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나 세상왕국 보다 영적 왕국이

9) Eric G. Jay, 198.

10) Martin Luther, J. Pelican and H. Lehmann ed, *Luther's Work* 45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81-129.

11) Martin Luther, *On Secular Authority: How far does the Obedience owed to it extend?* trns. Harro Hopf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6.

12) *Ibid.*, 89, "Temporal Authority".

13) 박희석, "루터의 두 왕국론," *신학지남* 52권2집 (1985), 91-120.

14) W. D. J. Cargill Thompson, "'The Two Kingdom' and 'two Regiments': Some Problems of Luther's Zwei-Reiche-Lehre"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April 1969): 10.

15) Gerhard Ebeling, *Luther*, trns. R. A. Wil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178.

16)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5), 56.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영적왕국이 세상왕국을 가르치는 것은 타당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¹⁷⁾

루터와 그 지지자들은 천주교회의 끊임없는 공격에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 박해는 교세확장의 큰 장벽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555년 아우스부르크(Augusburg) 회의에서 각 지방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는 조건에 합의하는 조약을 체결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¹⁸⁾ 지방영주의 종교가 천주교이면 그 지역 모든 주민은 천주교인이 되어야 하고, 루터교인이면 모든 주민은 자연스럽게 루터교인이 되어야 한다. 통치자의 권한이 감독보다 높으며, 세속 영주의 영향력이 교회에 절대적이다. 이는 중세교회의 교황권 절대주의 견해나 루터의 두 왕국 이론과도 반대되는 이론이다. 세속 통치자가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¹⁹⁾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정치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3) 재세레파 국가관

16세기의 재세레파들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 단절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복음서의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믿었다.²⁰⁾ 1527년 새트러(Michael Sattler)가 중심이 되어 재세레파들이 작성한 실라이타임 고백서(Schleitheim Confession)는 그들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고백서의 여섯 번째 조항에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조항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류의 맹세도

17) Theodore G. Tappert, ed., "Formula of Concord," *the Book of Concor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518. 은혜의 왕국은 영원하지만 세상왕국은 현세적이며 잠깐이다. 그래서 영적왕국이 훨씬 중요하고 최고로 고상하다.

18) Lewis W. Spitz, 136.

19) J. S. Whale, *The Protestant Tradi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1955), 303-304.

20) Owen Chadwick, 서요한 역, *종교개혁사*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195.

결코 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¹⁾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병력의 의무를 거부하고 무저항주의 평화를 외쳤다. 후터(John Hut)파는 자신들의 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인해 심지어 국가에 납세까지 거부하였다.²²⁾ 기독교인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도 세상법정에 호소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²³⁾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보이는 장면이다.

크라이더(Kreider)는 “재세레파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이므로 기독교인이 현실 국가와의 관계 맺는 것을 부정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국가의 관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인정하지만 기독교인이 관리가 되는 것을 반대 한다고 하였다.²⁴⁾ 그들은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을 인정하지만 기독교인이 국가와 어떠한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 이원론적 모순에 빠진 주장을 하였다.²⁵⁾ 재세레파는 당장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어 세속통치 제도를 완전히 제거하고 복음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도록 기대하였다.²⁶⁾

칼빈은 사상적, 종교적 대격변기의 혼란시대에 여러 종류의 국가관을

21) William R. Estep, ed. "The Schleitheim Confession," *Anabaptist Beginnings (1523-1533): A Source Book* (Hieuwkoop: B. De. Graaf, 1976), 99. 고백서는 “같은 악한자들을 처벌하고 사형에 처하면서 선한 사람을 보호한다. 율법에서 같은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은 관리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다. Lewis W. Spitz, 136. 후일 쾰빙글리와 칼빈도 이 고백서를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22) George 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225.

23) Owen Chadwick, 196.

24) Robert Kreider, "The Anabaptist and the State," *The Recovery of the Anabaptist Vision*, ed. Guy F. Hershberger (Pennsylvania: Herald Press, 1972), 189. 李殷善, 49에서 재인용.

25) Hans J. Hillerbrand, "The Anabaptist View of the State," *Mennonite Quarterly Review* 32(1958), 100.

26) William Lumpkin, *Baptist Confession of Faith* (Chicago, 1959), 27.

접하였지만 성경과 인문주의 연구 결과 이러한 사상을 거절하였다.

2. 칼빈의 국가관

칼빈은 시민정부 이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독자들을 위하여 순서를 명확히 하고 시민정부의 주제를 분리하여 논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법의 보호자요 수호자인 통치자, 둘째 통치원리가 되는 법, 셋째, 법에 따라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다.”²⁷⁾ 본고는 칼빈이 제시한 순서를 따라 논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가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1) 국가의 기원

칼빈은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국가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창조 때부터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가르친다.²⁸⁾ 칼빈은 신명기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아담의 타락이 세속정부의 필요를 만들었다고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대로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성품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법질서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²⁹⁾

27) John Calvi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제4권 10장 3절. 이 후에 인용된 모든 기독교강요는 크리스찬다이제스트에서 출판한 책임.

28) Christoph Jungen, "Calvin and the Origin of Political Resistance theory in the Calvinist Tradition," Th. M. Thesis, (Westminster Seminary, 1980), 16. 이 논문은 칼빈의 정치윤리관을 심도있게 취급한 훌륭한 논문이다. 본고는 Jungen의 논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29) John Calvin, *Sermons on Deuteronomy 16:18-19 Commentary on Genesis*,

칼빈은 오늘날 강력한 법체제와 정부의 필요는 타락이라는 동인(occasional cause)이 제공하였다고 가르친다. 칼빈의 정치윤리를 연구한 월저(Walzer)도 “그의 정치체제의 첫 번째 발판은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소원(疎遠)에 두고 있다”³⁰⁾ 고하였다.

칼빈은 세속정부가 필요한 근인(近因)은 인간의 타락에 두고 있지만 근본적이고도 결정적 원인(遠因)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구속사역이 아담의 타락에서 시작되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인간의 공공질서도 구원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속정부의 기원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이 지배자들의 손에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 의해 시작된다”³¹⁾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이다.

칼빈에 의하면 국가나 사회의 공공질서가 기독교인에게는 무의미한 세속적 제도가 아닌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며, 법질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사다.³²⁾ 구원 받은 성도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적 은혜를 받고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는 “신적 은사는 이방 민족에게도 비취었고...성령의 은사들이 온 인류에게 미쳤으며...우리는 천문학, 철학, 의학, 그리고 국가 통치의 질서를 이교들로부터 물려받았다”³³⁾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정치나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시민을 위해 행하는 봉사는 하나님

4:20(Grand Rapids: Eerdmans, 1948)

30) Michael Walzer,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A Study in the Origins of Radical Politics* (New York: Theneum, 1976), 27.

31)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4절

32) Christoph Jungen, 20.

33) *Commentary on Genesis*, 4:20(Grand Rapids: Eerdmans, 1948), 217-218. 이후에 인용된 모든 칼빈의 주석은 Eerdmans에서 출판된 1948년 판임.

앞에서 신성하며 거룩하고 최고로 명예롭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해서 안 된다.³⁴⁾ 그래서 위정자들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는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뛰어난 것이다.³⁵⁾

칼빈은 “모든 세상 왕들의 보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늘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다”³⁶⁾고 가르치면서 정부는 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칼빈은 독재와 부패한 권력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친다. 그는 모든 통치 권력은 성스러운 기원 갖고 있다는 이론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국가 통치를 단순히 필요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하게 부여된 것이라는 생각이 칼빈을 국가통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갖게 한 원인이 될 것이다.³⁷⁾

그 결과 “국가는 인간의 타락 후에 필요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이다.”³⁸⁾ 칼빈에게는 국가 제도가 “우리의 현세적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축복이다.”³⁹⁾ 칼빈은 하나님이 국가를 제정하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외적 예배를 보호 육성하며 건전한 경건의 도리와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고 우리의 삶을 인간사회에 적응시키며 시민 사회의 정의에 입각하여 우리의 생활방식을 형성하고 우리 서로간의 화해를 도모하며 공공의 평

34)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4절.

35) *Commentary on Peter 2:20*.

36) *Commentary on Psalms 110:1*.

37) Michael R. Gilstrap, *John Calvin's Theology of Resistance*(존 칼빈의 시민 불복종 이론), 박희석 역, *레마*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술지)(1988): 9-48. 이 논문은 Jungen의 논문을 요약 정리하면서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칼빈의 정치윤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논문이다.

38)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4절

39) Joachim Staedtke, "Demokratische Traditionen im westlichen Protestantismus," *Kirche und modern Demokrat* ed. T. Strohm and H. D. Wendlan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349.

화와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라⁴⁰⁾ 하였다.

칼빈은 “만일 우리를 구속하는 법과 그것의 시행자인 위정자를 두는 정부 제도가 없다면 인간은 방황하게 될 뿐 아니라 악인의 광포를 막을 아무런 제재력도 갖지 못할 것이며, 무죄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전체적 파괴가 초래될 것이라⁴¹⁾고 하였다. 그는 “만일 통치자가 악인들을 제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강도와 살인자로 가득할 것이라⁴²⁾ 하였다.

사실 국가의 공권력과 각종 사법권이 악한 인간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사악한 짐승보다 더 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강력한 국가 공권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위정자의 권력은 인류를 파멸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⁴³⁾ 그것 없이는 인류 사회의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치료책이다.⁴⁴⁾ 인류가 무정부상태의 혼란에 빠져 온갖 종류의 살상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국가와 통치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칼빈은 국가나 정부의 제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강요 제4장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會)에 초대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라 묘사하고 있다. 그가 국가를 구원의 “외적인 수단”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뜻을 대변하기 위함이다.⁴⁵⁾

칼빈이 국가의 기원을 논할 때 죄와 전쟁과 같은 사회의 악들을 억누르면서 치료하는 것과 같은 부차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다른 목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제도와 위정자의 권력은 죄에

40)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절

41) *Commentary on Romans* 13:3.

42) *Commentary on II Timothy* 2:2.

43) *Ibid.*

44) *Commentary on I Peter* 2:15.

45) Christoph Jungen, 21.

대한 형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녕을 돕는 것으로 간주한다.⁴⁶⁾ 그러므로 칼빈에게는 세속 정부의 기원은 창조 때 인간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반은총적 은혜이다.

(2) 위정자(Magistrate)

칼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talent)와 직업의 소명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통치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로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⁴⁷⁾ 칼빈은 부모와 통치자를 비교하여 통치자의 신적 소명을 설명하고 있다.

십계명 제5계명은 제유법(synechdoche)을 통해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위정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권위를 대신하는 대사(大使)라는 영광의 징표를 새겨주셨다... 백성들이 재판장들을 존경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관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대행자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부모의 자리에 두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 그들을 높이 사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높이 세우셨다는 것이다.⁴⁸⁾

칼빈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할 뿐 아니라 구속 은혜의 외적적인 전달자로 가르쳤다.⁴⁹⁾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세속통치자들의

46) *Commentary on Romans, 13:1-2*

47)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4절.

48) *Commentary on Exodus 22:38*

49)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3절

역할을 가리켜 “음식과 물과 태양과 공기”의 효력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⁵⁰⁾ 그들의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는 일반은혜의 수단들 중의 하나다.⁵¹⁾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고 신성한 소명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 위정자들이 하는 일들을 종합하며 정의하면 백성들의 인간다움(humanity)을 증진시켜 건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⁵²⁾ 그들은 우상숭배 근절, 공공질서를 촉진시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⁵³⁾

사실 오늘날 통치자와 강력한 국가의 공권력이 없다면 선량한 백성들은 정상적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과 신앙생활도 불가능하다. 흉악범들이 공공장소나 가정과 교회 등에 침입하여 재산을 탈취하면서 인신매매나 살인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정상적 생활과 교회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사악한 사람들이 날뛰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겠는가? 국가의 강력한 군대가 없다면 외국의 침입을 받아 우리 국민은 정상적 생활과 신앙생활이 불가능함을 일제 36년과 6.25를 통해 경험으로도 알고 있다. 칼빈은 시민들이 위정자나 그들의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면 정부는 혼란으로 빠지게 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예척하고 개인은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위정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정자는 모든 일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정대 하여야 하며 정직과 청렴결백으로 생활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50) *Ibid.*

51) *Commentary on 1 Timothy 2:2.*

52)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3절

53) *Ibid.*

자기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역자들임을 알고 있다면, 공의와 분별과 온유함과 자기절제와 정직을 향하여 열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자기들의 재판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을 듣는데 감히 어떻게 불의와 야합하겠는가? 자기들의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부정한 선고를 내리겠는가? 자기들의 손이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지정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무슨 양심으로 사악한 법령에 서명하겠는가?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섭리와 보호와 선하심과 자비와 정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진지하고도 부지런한 열심으로 살필 것이다.⁵⁴⁾

칼빈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권대사(全權大使)이므로 머지않아 자신들이 행한 업적에 대해 행정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⁵⁵⁾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과 칭호와 영광의 광채를 비추셔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도록 하신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통치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어야만 한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위정자들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왕을 세우거나 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이다. 자신들이 원해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⁵⁷⁾ 그에 따르면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54)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6절

55)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4절

56) *기독교강요* 제2권 8장 35절

57) *Commentary on Psalms* 110:1.

들이 스스로 높이는 한 그들의 통치권이 아무런 명분을 갖지 못한다.⁵⁸⁾

칼빈은 통치자들에게 “재판관과 위정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해서 안 되며, 무슨 일이든지 법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행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임무를 온전히 행할 수 있다”⁵⁹⁾고 경고하였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왕들과 군주들이 마치 세상이 자신들만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우쭐대지 못하도록 하라. 세상 만물은 천하 만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나라와 왕국을 세우시지 않으셨는가?⁶⁰⁾ 왕들에게 경고하노니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하여 법과 원칙에서 위배되는 일을 행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추호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차별적 판단을 하여 호의를 베풀지 않으신다.⁶¹⁾

위정자들은 공의와 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공무(公務)를 행하고 자신들의 사생활과 성품에 대해서도 청결과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 특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의 복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으로 정부를 세우셨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백성을 다스림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⁶²⁾ 그러므로 위정자가 국민에게 행할 본질적인 통치행위는 봉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⁶³⁾

58) *Ibid.*

59) *Commentary on Exodus* 18:15.

60) *Calvin's Sermons from Job*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192.

61) *Commentary on Jeremiah* 36:29.

62) *Sermon on Ephesians* 5:18-21

(3) 법률

칼빈의 국가관에서 통치자 다음 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로 국가의 법률에 대해 가르친다. 칼빈은 국가의 법에 대해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국가에서 통치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법이다. 법이란 국가 체제의 가장 든든한 힘줄이며, 키케로가 플라톤을 따라 말한 것처럼 법률은 국가의 영혼이며, 통치자가 없는 법은 효력이 없듯이 법이 없는 통치자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이란 말없는 통치자요,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이라는 말보다 더 실감나는 말은 없다.⁶⁴⁾

통치자는 전제군주 시대의 독재자처럼 법을 초월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칼빈은 국가통치에서 유일한 수단은 법이라고 강조한다. 그 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자연법이든,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모든 법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인간사회라는 유기적 조직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통치자가 아니라 법이다.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은 공공질서든 무엇이든지 간에 법률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⁶⁵⁾

칼빈은 법 기능에는 신수법(Divine), 자연법(Natural), 실정법(Positive) 세 종류가 있다고 가르친다. 신수법(神授法)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자연법은 창조 때 만들어진 창조질서를 뜻한다.⁶⁶⁾ 타락으로 비록 자연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자연은 본래적 모습을 유

63) *Sermon on I Samuel* 8:11-22.

64)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14절

65) *Jungen*, 30.

66) *Commentary on Romans* 2:14ff, *기독교강요* 제2권 2장 2-17절.

지해오고 있다.⁶⁷⁾ 타락한 인간에게 계시된 법이 자연에 심어진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깨닫게 한다.⁶⁸⁾ 따라서 칼빈에게 자연법칙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궁극적으로 신수법이며 이 둘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다.⁶⁹⁾ 기록된 율법은 자연법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증거이며,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던 자연법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⁷⁰⁾

칼빈은 자연법을 창조명령이라 가르친다.⁷¹⁾ 이 자연법은 아주 신성하며 오늘날 시민정부의 실정법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⁷²⁾ 그 예로 생명의 신성함,⁷³⁾ 일부일처(一夫一妻) 원리,⁷⁴⁾ 부모와 위정자들에게 대한 순종,⁷⁵⁾ 장자의 권한,⁷⁶⁾ 등은 모두가 자연법에 속하지만 오늘날 실정법이다.

실정법은 국가가 자연법에 속한 원칙을 적용하여 만들어낸 특별한 법을 뜻한다.⁷⁷⁾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개의 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평법(衡平法)이 된다.⁷⁸⁾ 칼빈에 따르면 심지어 구약의 재판법까지도 원래 자연법에 속한 원칙들에 대한 피상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⁷⁹⁾ 칼빈은 실정법과 그 법의 기초가 되는 형평법을 구분한다. 비록 형평법이 자연스럽고 만민에게 공평하게 인식되어 적용되고 있다할지라도 그러한 법들이 다양한 환경

67) *Commentary on Genesis* 3:19, 8:21.

68) *기독교강요* 제2권 8장 1절, *Commentary on Ezekiel* 16:1-3.

69) *기독교강요* 제2권 16장 2절

70)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16절, *Commentary on Psalms* 119:52.

71)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106-108.

72) Michael R. Gilstrap, 23.

73) *Commentary on Genesis* 4:15

74) *Commentary on Genesis* 42:22

75) *Commentary on Genesis* 9:22, *Exodus* 20:12, *Deuteronomy* 5:16

76) *Commentary on Genesis* 48:17.

77) Gilstrap, 23.

78)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16절

79) *Ibid.*

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평법이 모든 법률의 규범이고 목표이며 한계가 되어야 한다. 칼빈은 “모든 법률은 이 법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 법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그 법률이 유대법과 다르거나 법률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⁸⁰⁾고 하였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수많은 칼빈주의자들을 처형할 때 존 낙스(Knox)는 여자가 왕좌에 앉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여부를 칼빈에게 질문할 때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여자가 왕좌에 앉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모순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께서 영웅적인 정신을 소유한 여성을 일으키신 것을 드보라의 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자가 통치권자가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 어떤 행동도 할 권리가 없음을 밝힌다.⁸¹⁾

칼빈은 영국의 특별한 환경에서 메리가 여왕으로서 국가의 통치자가 된 것에 합법성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칼빈은 법률은 특별히 통치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위정자와 법률의 관계를 “법률이란 말없는 통치자요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률이다”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분리할 수 없는 두 관계를 설명한다. 통치자는 법률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고, 반대로 법률도 위정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통치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치자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폭군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80) *Ibid.* 이런 이유로 칼빈은 국가마다 법률의 상이한 차이점을 깊이 연구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그런 연구가 끝이 없을 뿐 아니라 무익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81) Letter to Bullinger(April 28, 1554) in Jungen 68.

것이 칼빈의 가르침이다.⁸²⁾

(4) 백성

칼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이던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소명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아 위정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⁸³⁾ 모든 인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지니는 의무도 있다. 이와 같이 통치자와 신민도 각각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소명이 있다.⁸⁴⁾

칼빈은 자신이 생활하던 시대의 정치와 권력구조를 분석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힌다. 그는 위정자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이므로 모든 백성은 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절대주의(absolutism)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칼빈 당시 그의 조국 프랑스에서 절대주의 정치를 하고 있었다. 절대주의를 잘 묘사한 구절은 “백성은 짐(왕)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절대주의에서 왕이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법이 된다. 여기에는 왕 한 사람이 실수하면 모든 백성이 가혹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로 표현되며, 백성이 결의하면 법이 된다. 민주주의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칼빈은 절대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한 절충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⁸⁵⁾ 그는 왕과 백성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통치되는 정부가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각각 세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율법 아래 왕과 백성이

82) *Commentary on Exodus*, 3:22.

83) *Jungen*, 39-40.

84) *Ibid*.

85) *Gilstrap*, 25.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 통치되는 정부가 모범적 정부구조이다.⁸⁶⁾

칼빈은 위정자와 백성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중요하게 취급한다. “통치자들에게 신민(臣民)들이 행해야 할 첫째 의무는 그들의 의무를 지극히 존귀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할권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대리인으로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다.”⁸⁷⁾ 통치자를 필요악으로 생각하여 단순하게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칼빈이 ‘존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인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⁸⁸⁾

칼빈은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관직을 맡으면, 그 관직의 위엄 때문에 그 위정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벧전 2:13-14)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한다.

신민들은 통치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한 복종심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통치자들의 포고 내용을 따르든, 세금을 납부하든, 공적인 직책을 수행하며 국가를 방어하는 일에 부담을 지든, 기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든, 자기들의 복종심을 드러내보여야 한다.⁸⁹⁾

칼빈은 악한 폭군까지도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채찍으로 세우셨다고 하였다.⁹⁰⁾ 그는 “아무리 악한 폭군이라 하여도 어떤 부분에

86) *Ibid.*

87)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2절

88) Glistrap, 26.

89)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3절.

서 인간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폭군은 없다”⁹¹⁾고 하였다. 혹시 악한 통치자가 폭정을 한다할지라도 그들에게 반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⁹²⁾ 이때 기독교인은 불평보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고 칼빈은 가르친다.⁹³⁾ 그는 “악한 통치자가 선정하도록, 이 악정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니 이 고통을 거두어지고, 정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⁹⁴⁾ 기도 하라고 가르친다.

칼빈은 유약한 통치자를 무시하는 것은 부모가 늙고 힘없다고 멸시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스스로 속는 사람이 없어야겠다. 통치자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므로, 통치자가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그를 무시해도 무시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에 대한 멸시로 여기서 강력하게 응징하시기 위하여 무장을 갖추고 계신다고 하였다.⁹⁵⁾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려는 뜻에 따라 위정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반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⁹⁶⁾ 따라서 칼빈에 따르면 국가가 어떤 권력구조를 취하던지 기독교인은 기쁜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

90) *Commentary on 1 Timothy 2:2.*

91)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성광문화사, 1997), 308

92) *Commentary on Genesis 14:1, Sermon on Deuteronomy 5:16.*

93)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9절.

94) *Sermon on 1 Timothy 2:1-2.*

95) *Ibid.*

96) *Commentary on Romans 13:1*

다.⁹⁷⁾

칼빈은 국민이 고의적으로 공공 업무에 간섭하는 행위, 공권력에 도전하는 일,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친다. 만일 어느 법령의 수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나서면 안 된다. 그 문제는 오직 정치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맡겨야한다.⁹⁸⁾ 칼빈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일 외에 어떤 일에도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또한 잘못된 법령의 개정도 오직 통치자의 책임이며 권한이다.

칼빈은 국가의 공권력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비난을 하였다. 이들은 얼굴도 붉히지 않고 관리들을 비방하며 공공 법규나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들은 무력 행위는 모두 이교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은 국가전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난동은 사탄적 행위다.⁹⁹⁾

칼빈은 “왕들이 마음대로 저지르는 횡포가 도에 지나치다할지라도,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너희의 의무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¹⁰⁰⁾고 하였다.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거만하고 포악한 통치자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한 업적에 대해 계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과 “천한 자를 일으키시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사실이다.”¹⁰¹⁾

시민 개인이 이러한 폭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97) *Sermon on I Samuel 23:1-8*

98)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3절.

99) *Commentary on II Peter 2:10*.

100)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6절.

101) *Commentary on Genesis 16:8*.

은 “모종의 불법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음모하는 사악한 양심의 표현이다.”¹⁰²⁾ 군주를 세우는 일은 백성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¹⁰³⁾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신다. 따라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항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다.

국가 발전을 위해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정자, 백성, 국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며 그 기도가 복종과 순종의 증표가 된다.

우리는 왕의 권위 아래 생활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그에게 복종해야 하며 아울러 그의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적인 복종의 증인이 되신다.¹⁰⁴⁾

칼빈은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 하였다.¹⁰⁵⁾ 칼빈은 위정자는 하나님 자신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 본질의 기초가 된다.¹⁰⁶⁾ 백성들은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¹⁰⁷⁾

102) *Commentary on Romans* 13:3.

103) *Commentary on Jeremiah* 38:1-4.

104) *Commentary on Jeremiah* 29: 7, *Commentary on I Timothy* 2:2.

105) *Commentary on Jeremiah* 29:7.

106) *Sermon on Deuteronomy* 5:16.

107) *Sermon on Titus* 2:15-3:2.

3. 불복종의 원리

칼빈이 사역하던 16세기 프랑스의 천주교인 국왕은 목회자에게 생활비, 학교 교사에게 임금, 학생들 기숙사 급식 등을 공급하지 않아 칼빈주의자들 가운데는 이교도 왕의 실정(失政)을 비난하면서 반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¹⁰⁸⁾ 칼빈은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교, 주석, 강의 서신들을 통해 답변을 제시하였다.

(1) 정당하지 않는 항거

칼빈은 통치자가 우연히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위정자가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쳤다.¹⁰⁹⁾ 그는 통치자가 어떠한 사람이, 무슨 방법을 통해 그 자리에 올랐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즉 통치자가 과거 누구였든지, 무슨 수단으로 그 자리에 올랐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현재 위정자가 그 관직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통치자가 이교도이든, 직무에 불성실하든, 불법적 통치를 하든, 그러한 것이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¹¹⁰⁾ 칼빈은 “우리가 터키인들이나 폭군 또는 복음의 치명적인 원수의 치하에서 생활한다할 지라도 그들에게 복종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¹¹¹⁾이라 하였다. 통치자들이 불법적인 정치를 하거나, 복음의 대적이 된다할지라도, 그들이 맡고 있는 관직은 불법성과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말살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

108) *Commentary on Isaiah* 49:23.

109)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8절.

110) *Jungen*, 66.

111)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5절.

칼빈은 통치자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이나 강압적 무력을 사용하여 권력을 찬탈 한 후 백성을 억압하고 교회를 박해한다할지라도 항거할 수 없다고 베드로의 예를 들어 가르친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를 언급하면서 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다. 로마 황제는 교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대 땅을 점령하고 전제군주로서 폭압적 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반란을 위한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하였다.¹¹²⁾

그는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저항하지 말고 통치자가 공포하는 법률과 포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치자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든지, 비록 자기 직무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한다... 주께서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권위가 오직 주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선포하신다...또한 불의하게 다스리고 무능하게 다스리는 자들은 백성들의 사악함을 벌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통치자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권세와 함께 거룩한 위엄을 지니고 있다.¹¹³⁾

위정자가 불법으로 선출되었든지 비성경적 원리로 통치하든지, 정책이 이상에 맞지 않는다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칼빈은 십계명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복종은 정의로운 통치자에게만 바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추론이라”¹¹⁴⁾ 한다.

112) *Commentary on 1 Peter* 2:13.

113)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5절.

114)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9절.

아버지와 남편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든 않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¹¹⁵⁾ 아버지가 존경받을 가치가 없더라도 그가 아버지인 이유 때문에 그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폭군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¹⁶⁾

칼빈은 위정자들의 공과에 따라 권위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존경해야 한다고 명백히 가르친다. 칼빈은 그렇다고 통치자들의 게으름, 우매함, 잔인한 폭정 등을 칭송하라는 것도 아니다. 백성은 담담한 침묵과 슬픔 속에서 그것들을 탄식할 뿐이지,¹¹⁷⁾ 선동과 방종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정부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¹¹⁸⁾ 칼빈에 따르면 아무리 잔인하고 난폭한 폭정이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좋고 유익하다.¹¹⁹⁾ 그래서 위정자가 자신의 의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불순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한국 근대사에서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킨 천주교회와 KNCC 지도자들은 민중신학으로 학생들을 이념화시켜 반정부 운동을 하였다는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근래 그들 중의 소수는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 때론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각종 무력항쟁을 일삼았다. 그러다 경찰이 범인을 색출하려 하면 실정법 위반 혐의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성당에 숨겨두고 경찰 출입을 막기까지 하였다. 불교 사찰까지 천주교를 모방하기도 하였다. 명동성당과 조계사 사찰이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쫓기

115) *Ibid.*, 제2권 7장 35-38절

116) *Commentary on I Peter* 2:14.

117) *Commentary on Exodus* 22:28.

118) *Ibid.*

119) *Commentary on I Peter* 2:14.

는 사람들을 은닉시켜주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전국의 수만 개가 넘는 모든 교회와 사찰도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회와 사찰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치외법권적 지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정당한 항거

칼빈이 백성들에게 통치자들을 향해 절대적인 순종할 것을 권면하지만 만 조건적 저항을 허락하고 있다. 위정자들은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합법성을 인정받는다고 가르친다.¹²⁰⁾ 세속통치자들이 넘지 못할 한계는 어디인가? 칼빈은 자신의 두 왕국 이론으로 세속정치가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침범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위정자들에게 중요한 권력을 위임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직접 침해당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사도 행전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¹²¹⁾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왕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가 그 명령에 항거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만일 세속 통치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행위를 말살시키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훨씬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항거 한다고 하여 세속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¹²²⁾

120) Jungen, 73.

121) *Commentary on Acts* 4:19.

122) *Commentary on Acts* 17:7.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에서는 세속통치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우선이다. 칼빈은 제5계명에 호소하면서 세속통치자의 명령에는 조건적이고 제한적 순종만 할 것을 가르친다.

부모가 만일 우리에게 율법을 범하도록 부추긴다면, 그들을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외인으로 간주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군주들이나 영주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위사들에게도 이런 원리로 대해야 할 것이다. 위사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이다.¹²³⁾

칼빈은 이런 경우에는 백성이 반드시 왕에게 저항해야 하고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가르친다. 위정자가 자신에게 금지된 영적인 영역을 침입하는 순간 그는 합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영역은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적 영역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입법자이다.¹²⁴⁾

칼빈은 호세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최우선임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를 하도록 한 왕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다. 그들의 죄는 왕이 명령한 배교행위를 한 것이다...우리는 왕에게 복종해야한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보게 된다. 선지자가 그 백성을 비난하

123) 기독교강요 제2권 8장 38절

124) 기독교강요 제3권 19장 14절.

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너무 지나치게 맹종하였다는 것이다. 왕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왜곡시키고 더러운 미신을 강요할 때 백성들은 단호하게 저항해야만 하였다.¹²⁵⁾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수호 전제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다. 세속군주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그 순간 왕으로서의 권위는 상실되어 버린다. 그때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저항을 해야 한다. 칼빈은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하여 그 영광을 찬탈하려는 가증한 범죄로 생각하였다.¹²⁶⁾

칼빈이 위정자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였으나, 통치자가 자기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언제나 항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왕에게 저항을 할 때는 박해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성도가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왕명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¹²⁷⁾ 칼빈은 누구든지 영역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계명을 역행할 때는 그의 직무상 권위와 명예는 상실될 것이라고 거듭 가르친다.¹²⁸⁾

칼빈은 통치자와 법률의 관계를 설명할 때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률로서, 그들 자신이 법률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법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가르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법률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 창조 때 제정하신 자연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국가의 실정법은 통치자에게 악세사리나 보조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원리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실정법의 목적은 위정자들이나 백성들이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가

125) *Commentary on Hosea* 5:11.

126) *Commentary on Daniel* 6:22.

127) *Ibid.*

128) *Commentary on Acts* 5:29.

르쳐 그대로만 행하도록 하는 뿔 수 없는 굴레와 같다.¹²⁹⁾ 그래서 법률은 속박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전신갑주와 같다고 하였다.¹³⁰⁾

통치자가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그는 폭군으로 전락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권위와 명예는 상실된다. 통치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을 위배하는 순간, 백성들로부터 항거와 저항은 즉각적으로 요청된다. 저항은 무너진 질서를 기존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저항은 특별한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이지, 위정자의 관직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

(3) 저항의 주체

우리는 통치자에게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누가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칼빈은 저항이 가능하다고 하여 누구나 함부로 통치자를 비난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항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에 따라 해야 한다.

① 하급관료들

무엇보다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하급 관리들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통치자들이 악으로 자기의 권위를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숙한 뜻으로 그들을 세우셨으므로 그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귀한 위엄이 있다…그러한 폭정에 대해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금방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¹⁾ 따라서 칼빈은 우선 하급관리

129) Jungen, 78.

130) *Ibid.*

131)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31절.

들이 폭군에게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만일 왕들의 사악한 횡포를 억제하도록 임명된 백성들의 관리들이 있다면 (고대 스파르타의 왕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감독관들(ephor)이 있었고, 로마 집정관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호민관들이 있었고, 아테네의 원로원을 견제하기 위하여 장관들이 있었고, 현재와 같이 각국의 최고 회의에서 삼부 계급이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하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서 왕들의 맹렬한 방종을 대적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체 낮은 평민들을 향한 군주들의 횡포를 그들이 눈감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극악스러운 배신행위라고 선언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민관으로 지명 받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백성의 자유를 부정직하게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²⁾

문제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 보다는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폭정을 억제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관료가 항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항을 할 때 기존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항거를 해야지 반항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만연된 반항적인 운동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기독교인의 저항은 국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의 통치 구조를 전복시켜 무질서를 창조할 목적에 있지 않다. 칼빈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대표단은 백성을 위하여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행사할 것이 아니

132) *Ibid.* 칼빈이 강요에서 언급한 장관(ephor)은 스파르타의 다섯 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왕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로마의 호민관은 원로원과 집정관으로부터 평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평민들 손으로 선출된 관리들이다. 그리스 평민회도 아테네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이 세 계급은 성직자, 귀족, 시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다. 이 정치 단체는 프랑스 및 몇몇 유럽 국가에서 절대군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임명한 대사로서 그 일을 위해 권한을 위탁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칼빈이 제시한 저항 문제에서 해결방안은 민주적 이라기보다는 사법적이라 할 수 있다. 백성의 여론이 아니라 법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세 계급은 대표 기구일 뿐 아니라 백성과 그들 자신의 권리 수호자들이다.¹³³⁾

오늘날은 최고통치자가 실정(失政)을 하거나 잘 못된 정책으로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정부 여당이나 그 정책에 종사하는 관료들이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범법 행위를 할 때 잘 못을 바로 잡기위해 야당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

② 일반 시민

칼빈에 따르면 위정자와 일반 시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각자의 소명을 따라 영역의 한계를 지켜야지 경계선을 침범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는 “일반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고의로 개입하지 않고, 통치자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고, 정치적 행위 등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다.¹³⁴⁾

통치자가 폭정을 하여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명령을 내릴 때 성도는 우선 기도해야 한다. 칼빈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할 훈련 원칙은 기도라”¹³⁵⁾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모든 왕들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시기 때문이다.¹³⁶⁾ 칼빈은 성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폭군을 위해 기도하

133) Jungen, 100.

134)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3절, *Commentary on I Thesalonians 4:11, Commentary on Psalm 101:5.*

135) Jungen, 87.

136)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9절

는 일은 쉽지 않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신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성도를 박해하는 폭군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실패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훌륭한 통치자 뿐 아니라 악한 통치자가 선정을 베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¹³⁷⁾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잔인한 폭군으로서 교회를 위협하고 파괴하였을 뿐인데도 자기가 그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칼빈은 가르친다.¹³⁸⁾ 인간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폭군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¹³⁹⁾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피난처를 찾을 때까지 폭군에게 복종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기도기도 하라고 칼빈은 가르친다.¹⁴⁰⁾

일반시민은 항상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한계와 조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은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는 예외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다.¹⁴¹⁾

만일 군주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금지한다면,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우상숭배 하도록 강요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반대되는 혐오스러운 일에 협력하고 동조하도록 명령한다면, 그들은 군주

137) *Commentary on 1 Timothy 2:2.*

138) *Commentary on Daniel 4:19.*

139) *Ibid.*

140) Jungen, 88.

141)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32절.

로 여겨질 가치가 없으며, 어떤 권위도 인정 받을 수 없다.¹⁴²⁾

칼빈은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례를 볼 수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지 않고는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습관대로 매일 세 번씩 기도하므로 결국은 왕에게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¹⁴³⁾고 하였다. 칼빈은 왕이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 그들의 권력이 즉각 포기되며,¹⁴⁴⁾ 백성들은 그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합법화 된다고 하였다.¹⁴⁵⁾

일반백성이 정부나 통치자에게 항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법적 절차를 따라해야 한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법적 절차를 따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치자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악행을 강요하면서 투옥이나 박해를 한다면? 교회가 진리 수호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박해는 각오해야 한다. 칼빈은 너희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채찍으로 사용하여 징계하니 죄를 회개하라 하였다.¹⁴⁶⁾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가 무력으로 국가를 대항하자는 원리는 비성경적이다.

기독교인이 왕에게 항거할 때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는 불변적 용기가 필요하다. 칼빈은 “헤롯을 책망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군주와 상대할 때 얼마나 용감하고 굳게 무장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¹⁴⁷⁾ 정의를 위해 군주에게 항거할 때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2) *Commentary on Hosea* 5:11, Jungen, 88.

143) *Commentary on Daniel* 6:22.

144) *Ibid.*

145) *Commentary on Acts* 17:7.

146) *기독교강요* 제4권 20장 29절

147) *Commentary on Matthew* 14: 3, *Commentary on Daniel* 4:20.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정부는 황제숭배를 일본정부는 일본 왕을 신으로 믿고 신사참배 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로마와 일본 정부는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순교하면서까지 항거하여 신학과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세계선교의 씨앗이 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칼빈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제정하신 일반은총적 은혜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통치자와 함께 법률과 백성은 국가 조직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무엇보다 통치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신성한 직임을 인식하는 것이 칼빈의 정치신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일반시민이 통수권자에게 저항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할 때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거가 가능하다면서 조건적 저항의 길을 열어 두었다.

칼빈의 일관된 가르침과 같이 일반국민 특히 교회는 통치자의 신적 소명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집단이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는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각 종교 집단 이기주로 인해 논쟁과 혼란이 야기되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는 또한 영역주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정치를 하는 개인 성도가 하급관리자로서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펴는 것은 정당하며,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일이다.

칼빈이 저항의 주체를 하급관료들과 일반 시민으로 양분한 것은 중요하다.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관료나 정치인들에 의해 혁명과

같은 수단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과 관료들의 지도를 무시하고 국민들이 시민운동만하는 것은 노력에 비해 손실만 클 뿐 효과적이지 못하다. 칼빈의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생활하는 21세기에는 만인 평등주의가 팽창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던지 투표나 네티즌들의 단결된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네티즌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운동은 일반시민의 항거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들의 투쟁방법은 대부분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일이던지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정치 정당이나 정부 관료의 지도하에서 항거가 일어나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칼빈이 강조한 것은 법률이 통치자나 백성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위정자 뿐 아니라 백성들도 법에 예속되어야 한다. 칼빈은 폭군을 정의하기를 국법에서 예외가 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¹⁴⁸⁾ 한국 역사에서 소수의 통치자들이 범법 행위를 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법정에게까지 출두하는 일이 발생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인간답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법률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위정자와 국민은 폭군처럼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정의를 주장하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법행위를 하는 소수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활동은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폭군에 가까운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운동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비전문가 집단의 선동에 의해 정책이 변경 혹은 개폐된다면 누구도 예측 못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미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경향을 하고 있다.

오늘날은 기독교인들도 단결하여 통치자에게 항거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종교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148) Gilstrap, 47.

심각하게 훼손할 때 제한적으로 정부에 항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잘 못된 정책에 대해 저항 하는 것이지 반항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는 목적은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요구는 정부의 법에 명시한 방법을 따라 정부당국, 정당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부를 향해 저항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였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성취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지점에서 저항은 멈추어야 한다.

끝으로 기독교인의 가장 효율적 항거는 올바른 투표를 통해서 성취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행하는 선거를 통해 심판, 경고, 정책 평가 등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합법적 정치참여이다. 따라서 교회는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